

故 張敬澤 박사

永訣式 KIST 葬으로 舉行

故人之 業績 기리며 追慕 의 情 되새겨

- ★ 科學技術界에서 尊敬받던 별 하나가 졌다. 우리 나라 機械工業界에서 아낌을 받던 故
- ★ 張敬澤 博士의 생애는 비록 짧았으나 그가 남긴 業績은 길이 남을 것이다. ★
- ★ 中小企業을 技術的 指導로 育成해 왔고 百億弗 輸出을 爲한 重化學工業構造 研究等 多
- ★ 彩로운 活躍을 하던 故 張博士——. 機械類를 國産化하는데 이바지 한 功績은 斯界에서
- ★ 높이 評價되고 있다. 이제 그는 유명을 달리했다. 國家發展과 人類福祉向上을 爲해 많은
- ★ 業績을 남겨 놓고 사라진 것이다. ★
- ★ 韓國科學技術研究所는 14日 故 張박사의 영결식을 韓國科學技術研究所葬으로 舉行하고
- ★ 故人을 追慕했다. (故 張박사 약력은 다음과 같다) ★

1933年1月22日 慶尙南道 晉州市 칠암동에서 父 親 故 張錫淵氏와 母親 金聖信氏와의 사이에 六男妹中 二男으로 出生.

晉州中學을 거쳐 1953年 3月 서울大學校 工科 大學 機械工學科를 卒業하신 후 1954年 留學 次 渡美하시어 1年間 美國 미시간주 엠마누엘 大學校에서 修學하시고 1958年 8月 美國 오하이오大學校 機械工學科를 卒業

卒業後 1968年까지 10餘年間 美國 오하이오 사 퍼발브會社와 世界有數의 美國 바브코크·윌콕스社의 中央研究所에서 선임기사로 奉職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美國 아크론大學에서 機械工學 碩士學位를 取得.

한편 1963年 “스텐레스 피복강재의 열간 압출에 관한 研究” 論文을 美國 學會誌에 처음 發表하신 後 作故하실때까지 모두 32編의 學術研究論文을 國內外 學會에 發表하셨으며, “2중 빌레트를 이용한 로드 압출법” 등 4件의 美國·韓國 特許를 획득하여 機械工學分野에 學術的으로 많은 寄與.

1968年 8月 在美 韓國人 科學技術者로서 韓國 科學技術研究所에 責任研究員으로 入所하여 金屬加工研究室長에 任命.

1971年 2月 仁荷工科學大學에서 機械工學 博士學

位를 획득, 同年 8月에는 韓國科學技術研究所 機械工學研究部長에 任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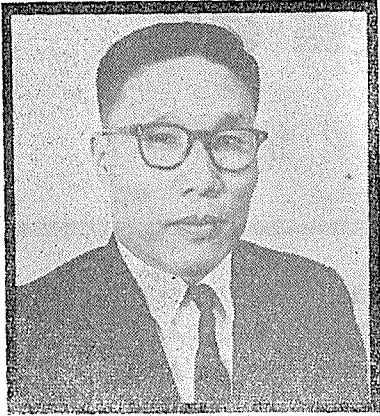
故 張敬澤 博士께서는 韓國科學技術研究所에 入所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中小企業에 대한 技術指導” “自動車工學 育成方案에 관한 研究” “百億弗 輸出을 위한 重化學工業 構造에 관한 研究” 등 26件의 研究課題를 遂行하여 國內 中小企業部門의 技術的 指導와 問題點들을 解決하여 우리나라 中小企業 育成에 큰 寄與를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政府 및 一般 產業界에 많은 公헌을 남기셨고 1975年 3月에는 商工部 機械類 國産化 촉진을 위한 諮問委員에 任命되셨다.

博士는 이와 같이 계속 多方面의 研究事業에 몰두하시던 중 1975年 1月 24日 現代醫學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重病으로 入院하셨으며 臥病中 大韓機械學會로부터 博士의 그동안의 功績이 높이 評價되어 1975年度 大韓機械學會賞 受賞者로 決定되었다.

闘病中에도 부단히 科學者로서의 恪別한 意志와 情熱을 보이시던 博士는 家族과 醫療陣의 精誠을 다한 治療의 보람도 없이 哀惜하게도 1975年 10月 10日 午後 3時13分 永眠하셨다.

現在 遺族으로는 1962年 3月31日 結婚한 全精愛 女史와 슬하에 根瑞君, 根赫君, 志銀嬢이 있다

弔 詞



삼가 장경택 박사의 영전에 조사를 올리나이다.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 박사께서 사랑하시던
부인과 자녀, 친척, 친지 그리고 연구소원 일동은
박사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리고자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경택 박사,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이 박사께 드리고자 하는 이 인사가 마지막 고별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허망하여 슬픔을 거둘길 없습니다. 박사께서 홀연히 떠나시니 저희들의 눈앞에는 지나온 가지가지
일들이 다시 눈에 어려웁니다.

인자하고 굳센 정신력의 소유자였던 장경택박사,

회고하건대 박사의 일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학문 연구와 사회 발전을 위한 피와 땀의 생
애였습니다. 평소 우리나라 기계 공업의 영세함과 낙후됨을 안타까와 하시면서 기계 공업 육성을
위해 헌신하시던 날이 눈앞에 선합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손수 친절하게 지도하셨고 종합 기계
기술 연구소 설립의 산파역을 맡으시면서 몸조차 돌보실 없이 주야 겸행하셨습니다. 박사의 유명을
달리하게 한 그 원망스러운 병도 돌이켜 보면 평소 건강은 돌보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셨던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니 애석함과 자책감이 더욱 절실해 집니다.

박사는 한번 결심하시면 이를 끝내 이루고야 마는 굳세고 의연한 성품이셨습니다. 그토록 연구밖
에 모르시던 박사께서는 이제 평안한 나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박사께서는 말없이 떠나셨으니 말
보다 더 값진 것을 우리들 마음 속에 깊이 새겨 주셨습니다. 겸손한 학자로서의 품위와 꾸준하고
조용하게 정진하시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의 마음 속에 깊이 남은 박사의 훌륭한
열과 모습은 영구히 계승되어 우리 연구소와 더불어 길이 길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장경택 박사, 이제 뒤에 남은 가족이나 마치지 못한 일들의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함
심하여 남은 가족은 계속 연구소의 가족이 되고 박사의 유업도 훌륭히 결실되도록 힘쓸 것을 맹서
합니다. 부디 평안히 가시옵소서.

1975년 10월 14일

한국 과학기술 연구소
소 장 한 상 준